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제자 마태

(마 10:2-4)

1. 그의 이름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매우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마태가 성직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2. 그의 처음 선택과 상처

마태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성직자와는 거리가 먼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유익을 따라 직업과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유일한 두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창기와 세리였습니다.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그 앞에 붙었던 세리, 생활은 넉넉했을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직업으로 인한 상처를 갖게 되고 늘 두려움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며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 그의 회심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 5:27-28). 이 일만 보면 그의 회심이 매우 즉흥적이고 급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직접 보았거나 혹은 소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4. 그의 사역

마태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자신만 누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세리들에게 이 구원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기보다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5. 그의 죽음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했지만 후년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창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그 영혼,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관계전도를 생활화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atthew, the disciple who replaced contempt with respect

(Matt. 10:2-4)

1. His Name

Matthew's real name is Levi. The name of Levi is very traditional and spiritual. Perhaps, his parents would have named him Levi in order that they expected him to enter the priesthood.

2. His first choice and wounded heart

Matthew threw away his parents' expectation and became a tax collector. Though he was Jewish, he chose a practical and useful occupation rather than a spiritual life.

At that time, there were two occupations of people who were not able to enter a synagogue; they were prostitutes and tax collectors. Whenever his name was called, there was the word of tax collector before his name. Though he lived a stable life, he was hurt by his job, and he had an empty life. However, by meeting Jesus Christ, he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3. His conversion

Jesus was near the tax collector's booth, Jesus said, "Follow me." Without any hesitation, Matthew threw away everything and followed Him (Mark 2:14). Like this, we can think that his

conversion was very impromptu and drastic. Judging from the fact that he came from Capernaum, Matthew already saw his mission clearly.

4. His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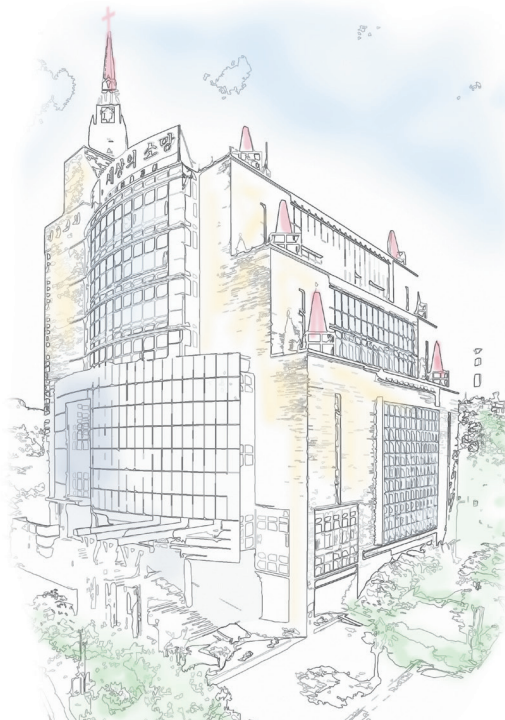
Matthew did not want himself to enjoy the life of salvation and joy that he got due to believing Jesus. He wanted to share this happiness with his fellow tax collectors who were in the same boat He intensively preached the Gospel to those who were related with him rather than strangers. Our target of mission work must be those whom we know and who are precious to us but do not yet believe Jesus better than unknown people. This is what we called 'the evangelism of relation.

5. His death

It is told that though Matthew preached the Gospel to Jews, after he did his missionary work in Ethiopia, on the way back to Judah, he was pierced by a spear thrown by those who were against the Gospel and died a martyr.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My beloved Christians,

Nobody knows how Jesus uses your soul when you make evangelism of relation a way of life, and guiding our precious people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Jesus worke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사명자대회 온 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매주 토요일 5시 30분 / 강사: 박노철 목사 -
VIP 초대 새생명축제: 11월 15일(금), 17일(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2013 사명자 대회가 10월 6일(주일) 발대식과 함께 시작되어 11월 24일(주일)까지 50일간 열린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을 사명으로 받았다. 해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서울교회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3년 사명자대회를 시작하였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는 말씀을 붙들고 진행 되고 있다. 사명자대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은 온 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된다.** 영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다음세대들과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다.



2013년 성경암송대회

예선: 오늘,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
본선: 10월18일(금) 오후7시, 602호 / 야고보서 전장

2013년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쳐 10월18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암송범위는 야고보서 1-5장(전장)이다. 글로 읽는 것은 15%가 기억에 남고, 시청각으로 보는 것은 25%가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40%가 남고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성경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6)

(문 105) 열왕기상22장과 역대하20장은 여호사밧의 배가 예시온 계벨에서 파선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왕상22:48과 대하20:35-36에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왕 아하시야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를 홍해의 예시온 계벨에서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오빌에 금을 구하려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솔로몬이 예시온 계벨에서 배를 지은 적이 있었으며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에게 가져온 적이 있던 곳이었습니 다.(왕상9:26,28)

유다왕과 이스라엘왕이 연합하여 배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려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중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왕상22:49)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20:35-36은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었으나 선지자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왕이 바알 숭배자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왕이 지은 배를 부셔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예시온 계벨 항구를 치시므로 배가 파선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왕상22장과 대하20장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강조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에게 거절한 것이 풍랑이 있기 전인지 아니면 배가 깨진 후 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후자일 경우라면 여호사밧의 거절은 깨진 배를 다시 중건하기 위해 동역할 것을 아하시야로부터 요청 받은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기록사이엔 아무런 마찰이 없으며 상호 보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군 제3사단 십자군교회 진중세례식



2013 사명자대회

한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신봉하 집사
(사명자대회 전도분과)

2013년도 사명자대회 전도 축제는 “우리는 사명자! 전도 하자 513!”이란 전도 구호를 내세우고 모든 성도가 한 영혼 구원 목표로 5,000명의VIP, 1,000명의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길 기대하며 작성, 기도, 접촉, 초대를 통하여 수시 등록하는 관계전도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명자대회 발대식에 연이어 시작된 VIP작성카드 작성으로 전도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작성하셨습니다? 아니면 주저하고 계십니까?

작성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온 성도가 구령의 열에 사로잡혀 작성에 동참하여 순종할 때 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줄 믿습니다.

24시간 연속기도회 장을 통해 작성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 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Life5 전도전략을 제시합니다 불신자 이웃들을 만나

7주간의 기도와 응답

VIP 전도실행 전략 Life 5

Life 5란?
불신자와의 벽을 허무는 운동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방안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 인사방문** : 10. 6 (주) ~ 10. 12 (토)
VIP를 작성한 후 일 주일에 걸쳐 인사방문을 합니다.
- 선물방문** : 10. 13 (주) ~ 10. 19 (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성스러운 선물을 합니다.
- 나눔방문** : 10. 20 (주) ~ 10. 26 (토)
직접 만든 음식, 자녀들 옷, 좋은 책 등을 나눕니다.
- 소망방문** : 10. 27 (주) ~ 11. 2 (주)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교회에 나올 이유를 주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 초대방문** : 11. 3 (주) ~ 11. 14 (주)
초대장을 가지고 VIP의 가정을 방문, 새 생명축제에 초대 합니다. 이 마지막 초대방문은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실 때 활용하셔서 사랑으로 품어온 VIP를 주님께 초대합니다. VIP초대 새생명축제는 11월15(금)과 17일(주일) 이틀에 걸쳐 열리며 17일(주일)에는 모든 교회 학교 예배시간에 다음세대들의 새생명축제가 함께 열립니다.



2012년 VIP초대 새생명축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

Soli Deo Glor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의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난 2011년 8월 발족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오는

11월 1일(금) 종교개혁기념사업회 기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는다.

종교개혁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500주년이 되는 2017년까지 종교개혁 관련 명저 번역, 학술 연구, 소책자 출판 보급, 학술대회 개최, 아카데미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의 지속적인 갱신과 한국신학

계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바른 신앙일 것이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이 날 모임은 11월 1일(금), 오후 5시 30분, 현대리버빌 문화센터(서울 광진구 광장동 131-1)에서 가진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박진희 권사(010-2943-2915)에게 연락하시면 된다. <편집부>

2013 사명자기도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게 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장로 노문환



카작소녀돕기 자선 음악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철웅 집사(1교구)

여덟 살의 살리땃은 노래 하길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자기 집 지하실에서 일어난 보일러 폭발사고로 체표면적의 60%이상(상반신 전체)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살리땃에게 화상으로 생긴 죽은 살을 깎아내고 자신의 허벅지의 살을 떼어 붙이는 피부이식수술은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번의 수술로 겨우 생명은 부지하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목과 팔, 그리고 무엇보다 화상의 심도만큼이나 깊이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살리땃의 아빠는 그의 딸을 위해 꼭 한국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의료진들과 함께 백방으로 그 길을 모색해 보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에서 의료팀이 왔는데 살리땃을 한국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내일 와서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뜻밖의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살리땃과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

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살리땃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날 우리 모두 살리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화상으로 수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피부와 근육들을 일일이 떼어내고 비는 공간에 피부를 이식하여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재활치료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근육량을 늘려 다시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은 적어도 3회 이상 해야 될 것이며 회복과 재활치료를 위해 두 달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살리땃 자선음악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주셔서 충분한 치료비가 모였습니다.

현재 살리땃은 거울을 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학교도 나가지 못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시답니다. 이런 살리땃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일 겁니다.

살리땃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살리땃이 이번 한국 방문과 치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서울교회 성

도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행정적인 과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과 재활의 일련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모든 관절과 근육이 힘을 얻고 자유롭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살리땃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이식되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 찬양대(대장:조정식장로)의 남성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태왕집사의 지휘로 "주 오시면", "성도여 다 함께", "다 감사드리세"의 세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정희 선생, 피아니스트 박수강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그리고 곡중 나레이션을 이근홍 집사가 담당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4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44회공개 세미나 및 9회 학술상 시상식을 갖는다. WRF(세계개혁주의연맹)과 포체스트롬 North West대학교와 공동주최하는 세계선교대회 논문발표와 WRF이사회 참석차 남아공으로 10월 15일(화)출국하여 25일(금) 귀국한다.
- 박정선장로(전양위원장)는 수원시립합창단의 다음주 미국 뉴욕, 워싱턴, 뉴저지, 뉴헤븐 순회연주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목도소리" 등의 합창곡을 발표한다.
- 공연: 신모란 집사(15교구) 푸치니 오페라 갈라콘서트, 2013년 10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10.13) 도라전도회(10.20)
- 금주의 식사: 김지숙 권사 가정(아들:강진석 성도)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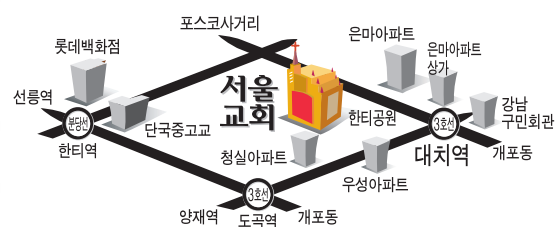
1.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 모든 기도의 시간들과 온가족도특새, 그리고 전도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2. 성경암송대회에 각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생명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3.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